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험담하는 사람 좋게 이야기 하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을 좋게 이야기 하세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해친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악업과 습관을 닦을 수 있는 더 좋은 방편은 없습니다.



그림 · 최주현



황선미(시인)

隨處作主, 내 삶의 주인공은 나

당신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청소년기에는 이성(異性)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집니다. 입시 준비로 인해 자유롭게 이성 교재를 하지는 못하지만, 청소년기에는 애착의 대상이 부모에서 이성 친구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 경쟁사회에 발을 디디게 되면 사랑과 낭만에 대한 호기심이 시들해져 버립니다. 물론 용기 있는 청춘들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요즘 '3포 세대(결혼, 출산, 내 집 마련)'라는 푸념이 사회 전반에 가득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앞서 세 가지에 꿈과 희망하는 직업, 인간관계와 연애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사랑이란 환상에 사로잡혀 '백마 탄 왕자'를 통해 신분상승을 꿈꾸는 '신데렐라 콤플렉스', 상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중독된 사랑과 우정'도 문제이지만, 서로 친밀감을 나누며 알아주고 소통하는 '지음(知音)'의 우정과 사랑마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영혼의 동료라는 의미인 '소울메이트(soul-mate)'는 남녀 · 연인의 낭만적 사랑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 선생님과 동료 등 자신의 활동 영역에서 만나 성공을 돕는 존재를 말합니다.

즉, 사랑과 우정의 경험은 개인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감정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탈이 나겠지요. 경전 중 하나인 〈능엄경〉에 등장하는 아난과 마등가녀 이야기는 사랑을 넘어선 집착을 경책합니다.

마등가녀 이야기

아난존자는 어릴 때 출가해 25년간 부처님 곁에서 시봉하며 그 가르침을 가장 잘 기억해 부처님 입멸 후 결집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용모가 매우 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난존자는 홀로 걸식을 떠났다가 기원정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강에서 한 여인이 물 긷는 것을 보고 목이 말아 그녀에게 물을 청했습니다. 여인은 아난존자에게 물을 떠주며 힐끗 보고는 천하에 둘도 없는 용모에 그만 반하고 맙니다. 여인은 존자의 이름을 물은 후 그의 처소를 확인하고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떼를 썼습니다.

"어머니, 오늘 강가에서 아난이라는 스님을 만났어요. 전 그 스님에게 꼭 시집갈 거에요! 시집가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겠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마등가라는 비천한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외도의 사술에 능했습니다. 묘책을 강구하던 어머니는 아난존자를 집으로 초대해 공양을 올리면서, 자초지종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난존자는 어머니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구족계를 받은 비구이므로 아내를 둘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주술을 부려 아난존자를 결박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키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멀리서 아난존자가 파계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아시고 문수보살을 보내 구출하게 했습니다.

아난존자를 놓친 마등가녀는 기원정사로 달려와 아난존자만을 찾습니다. 부처님은 여인을 불러왔습니다.

"아난은 스님이라 삭발했으니 너도 아난처럼 머리를 깎을 수 있겠느냐?"

"아난존자의 부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쯤은 문제없습니다."

"네가 아난을 사랑하였다 하니 무엇을 보고 사랑했는가?"

"저는 아난존자의 눈과 코, 입과 귀, 소리와 몸매와 걸음걸이 등을 보고 사랑합니다."

이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집착하는 사랑은 고통의 근본
상대 수용하는 성찰 시간 필요
사성제 통해 사랑 眞儀 찾아야
사랑 · 우정, 우리를 성장 시킨다

"너의 말마따나 아난의 눈에는 눈물이 있고, 또한 코에는 콧물, 입에는 침, 귀에는 귀딱지, 몸뚱이 안에는 대소변을 담고 있는 가죽주머니가 있다. 만일 아난과 네가 서로 부부가 된다면 육신이 서로 결합하여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죽게 되면 창자를 오리는 듯한 슬픔을 느낀다. 이러한데 네가 아난과 부부가 된들 무엇이 그리 행복하겠는가?"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애욕을 떠나 '아라한'이 됩니다. –〈능엄경〉 중에서

사랑의 6가지 유형

사랑의 시기는 인생에 있어 봄에 비유됩니다. 또 사랑의 힘은 만물이 움트고 화사한 꽃처럼 피어나는 창조성으로 발현됩니다. 마등가녀가 애욕의 고통을 딛고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힘의 바탕은 사랑입니다. 열정적 사랑과 이후의 집착은 고통을 수반했지만 마등가 여인을 성숙하게 했습니다.

사랑의 유형은 크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열정적 사랑(eros), 유희적 사랑(ludus), 우애적 사랑(storge), 실용적 사랑(pragma), 소유적 사랑(mania), 이타적 사랑(agape)입니다. 1차적 사랑은 열정적 · 유희적 · 우애적 사랑이고, 2차적 사랑은 두 종류의 사랑이 결합한 실용적(유희적+우애적) · 소유적(열정적+유희적) · 이타적 사랑입니다. 잘 생긴 외모나 섹시한 매력에 이끌린 감정은 열정적 사랑이고, 남녀가 서로에 대한 헌신이나 배려 없이 게임처럼 즐기는 관계는 유희적 사랑, 친구로서 알아가는 과정은 우애적 사랑, 상대가 자신의 기준이나 조건에 맞는지 따지는 건 실용적 사랑, 질투와 끊임없는 불안에 휩싸이는 건 소유적 사랑, 타인을 배려하는 자기희생은 이타적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유형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집착의 고통을 가져오는 관계를 맺고 있다면 상대와 거리를 두고 자신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 받는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수용하는 숙성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성제, 성숙의 계단 오르기

드라마와 영화에서 펼쳐지는 낭만적 사랑이나 사랑으로 인한 갈등은 애착과 집착이 되어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고 상대의 마음을 좌지우지 하고자 한다면 집착은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서로의 성장을 돕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1900~1980)은 사랑은 주고받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을 사랑하면 타인도 사랑할 수 있고, 타인을 사랑하고 있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며 '남을 사랑하는 능력과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은 서로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를 잘 사랑해야 상대를 잘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를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우정으로 인해 고통이 발생한다면 사성제(고집멸도, 苦集滅道)를 통한 성숙의 계단 오르기를 제안합니다. ①상대에게 집착하는 고(苦)를 딛고 ②현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각하는 집(集) 단계를 지나 ③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관계를 숙성시키는 멸(滅)을 넘고 ④상대와 자신을 돕는 성숙의 도(道)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사성제 성숙의 계단'은 상대에 대한 집착 없이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사랑과 우정을 성숙케 해 '소울메이트' 관계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